

도, 노동계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시동

한국노총과 생상협약 체결... 조직력·네트워크 활용한 유치 홍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적극 지원 다짐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계와 힘을 합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도는 8일 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 시·도지역본부 의장협의회 워크숍과 함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해수 시·도지역본부 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 의장단이 참석해 전국적 조직력을 갖춘 노동계가 전북의 도전에 힘을 보탰다.

이번 협약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전북의 새 도약을 이루기 위한 상생협력 모델 구축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지난날 18일 열린 전북 노사민정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직능별(노동계·경영계·학계) 상생협약 체결 방안이 논의된 후 첫 번째 결실로 한국노총과 협약이 이뤄져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올림픽 유치 및 개최 계획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자 친화적 정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전국적 조직력과 국내의 네트워크를 활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 시·도지역본부 의장협의회 워크숍 및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상생협약'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동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해수 시·도지역본부 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 의장단들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용해 유치 홍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외 지지 확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품은 올림픽의 꿈에 한국노총이 함께해 주셔서 든든하다"며 "이번 협력이 올림픽 유치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개최는 전북의 획기적인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국가적 대업"이라며, "노동계와 손을 맞잡은 만큼 더 큰 힘으로 전주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노동계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경영계, 학계 등과 연이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9월에는 노동계, 10월에는 경영계, 11월에는 학계와 협약을 이어가며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해 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에 전북의 준비된 모습을 알릴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극심한 가뭄 겪는 강릉에 힘 보탠다

전주완산소방서 소속 대용량 물탱크차 1대 긴급 투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위태로운 강원 강릉 지역에 급수 지원을 위해 9월 8일 전주완산소방서 소속 대용량 물탱크차 1대를 긴급 투입했다.

최근 강릉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8월 말 14.9%에서 9월 6일 12.7%로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정부는 제1차 국가소방동원령(8.31. 전국 50대 투입)에 이어, 9월 8일 제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에서 20대의

대용량 물탱크차를 급수 지원에 투입했다. 이번 동원에는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경남, 창원 등 전국 각지의 차량이 참여했으며, 전북에서는 전주완산소방서 물탱크차가 현장에 합류했다. 이번에 동원령으로 투입된 물탱크차는 동해·속초·평창·양양 지역 소화전 등에서 물을 담아서 화재전수장으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생활용수를 보충하는 임무를 맡아, 단순한 물 운반을 넘어 가뭄 극복을 위한



'이동식 생명선'으로서 현장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강릉 지역 급수 지원 현장에 투입된 전주완산소방서 진월한 소방위는 "많은 재난 현장을 경험했지만 생활용수

를 위해 정수장으로 물을 직접 운반하는 활동은 처음이다"며 "강릉 지역의 물 부족 현실을 현장에서 절실히 체감했고, 하루빨리 가뭄사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번 물탱크차 투입이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속에서 전북이 함께 힘을 보탠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전북에서 지원한 대용량 물탱크차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지켜주는 생명선"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소방은 도민의 안전을 넘어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 소멸·학령인구 감소 해법 찾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토론회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 참석

민주 윤준병·허영·최혁진 의원 등 공동주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한 농촌 작은 학교들을 살리고, 농산어촌유학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허영·최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사)농산어촌유학 전국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참석해 행사의 무게를 더했다.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

어촌 지역이 학교 통폐합, 교육 여건 악화,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어촌유학은 지역의 생명력을 되살리고 아이들에게는 풍부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농어촌유학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연과 함께하는 배움의 장을 열어주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농어촌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양성호 임실 대리초등학교 교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김경욱 교육공간 민들레 대표와 윤요왕 (사)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경욱 대표는 "농촌유학은 자연, 농촌,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생활하며 아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교육 활동"이라며, 의식주 교육과 더불어 생태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

도록 하는 지역의 교육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요왕 이사장은 "민간에서 시작된 농산어촌유학이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농림부, 교육부, 행안부 등 부처와 교육청, 지자체, 민간이 함께하는 '다자간 지원체계와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명훈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윤소야 서울특별시 교육청 장학관, 김미영 인제대학교 교사가 참여해 농산어촌유학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만호 기자

도, 전국 최초로 한우 씨수소 정액 도내 농가 무상 보급

‘천년전북 6호(KPN1885) 정액 3000여개 생산·공급

고능력 암소와 교배로 차세대 우량 송아지 생산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체 생산한 한우 씨수소 정액을 도내 농가에 무상 공급하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는 지난 5일 '천년전북 6호(KPN1885)' 정액 3천여개를 생산해 지역축협을 통해 공급했다. 공급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능력 한우를 보유한 농가로, 각 지역축협을 통해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그동안 씨수소 정액은 국가 주도로만 생산·판매돼 왔으나, 축산업 시행

령 개정으로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직접 생산이 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씨수소 정액을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첫 사례가 됐다.

'천년전북 6호'는 지난해 국립축산과학원이 주관하는 가축개량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육량과 육질 등 주요 경제 형질에서 고른 유전능력을 보유하고 고능력 암소와의 교배를 통해 우량 송아지 생산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암소 유전체 분석을 통해 고능력 암소를 선발·지정하고, 계획

교배를 추진하는 과학적 개량에도 힘쓰고 있다. 참여 농가의 암소를 대상으로 12개월령 체중, 도체중,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 등 주요 경제 형질을 평가해 상위 20% 암소를 도 고능력 암소로 지정하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천년전북 6호는 전북 한우 개량사업의 중요한 성과물"이라며 "오는 2026년 상반기에는 씨수소1두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가 수요에 맞춘 전북형 씨수소 선발과 정액 보급을 확대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추석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단속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등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일부터 26일까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에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 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도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약 4,700개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총 80명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만호 기자

익산 철도 사업 인프라 정부 지원 촉구

정현을 시장, 김윤덕 국토부장관 직접 만나 익산 철도 비전 공유

선상 역사 증축·서부주차타워·동인산역 진입도로 개설 건의

정현을 익산시장이 '철도 교통 중심지' 익산의 역할 강화를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났다.

정현을 시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윤덕 장관에게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윤덕 장관에게' 익산 3대 핵심 철도 인프라 사업'의 시급성과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강조한 3대 사업은 △익산역 대규모 시설개선 △익산역 서부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동인산역 진입도로 개설이다.

익산시는 호남선·호남고속선·전라선·장항선 등 4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 요충지다. 시는 향후 서해선 개통(2026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2032년) 등 대형 국가철도망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철도 이용객이 현재 연간 670만 명에서 2035년 1,448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2028년까지 총 480억 원을 투입해 익산 선상역사를 8,000㎡ 증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대합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문화·업무·컨벤션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정 시장은 특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익산역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해당 계획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호남권 대표 철도 관문도시로서 위상에 걸맞은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익산역 서부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도 논의됐다.

해당 시설은 지상 4층, 연면적 3만 2,000㎡ 규모로, 약 800대의 주차 공간과 19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시설을 갖추며, 옥상에는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이 주차타워가 익산역을 첨단 모빌리티 허브로 발전시키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비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또 주민 숙원사업인 동인산역 진입도로 개설도 요청했다. 현재 대형 화물트레일러가 임시 가교와 마을 안길을 통해 진출입하면서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총연장 1.2km, 폭 25m 규모의 화물 전용도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윤덕 장관에게 '익산 3대 핵심 철도 인프라 사업'의 시급성과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호우 피해 농민 등 생존권 보장 실질 대책 필요”

정의당 전북자치도당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오현숙)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북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많은 기록적인 폭우가 특히 농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군산, 익산, 전주 등 도심 상가와 전통시장이 침수되고, 1,300헥타르 이상의 농경지 및 가축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민들의 절망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지만, 재해보험 인내와 제한적인 복구 지원만으로는 생존 위기에 놓인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재난은 일시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다음의 3가지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도당이 내놓은 대책으로 농민 생존권 보장 재해보험 보상 현실화, 침수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복구비 지원, 도 차원의 재난 관리·대응 시스템 상시화 등이 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포도산업 발전 위한 품평회 개최

전북수출포도연구회

전북수출포도연구회는 8일 남원시 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전북 포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품종의 다변화를 위한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0 여종의 국내의 재배 품종에 대한 특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농업인 뿐 아니라 포도 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은 행사로 성황을 이뤘다.

국내 포도 수출은 '사인머스켓'을 중심으로 2021년 2,315톤에서 2024년 3,858톤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전북 수출량은 약 45톤으로 전체 포도 수출량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품평회에서 농가의 관심이 높은 '슈팅스타', '코코볼' 등 국내 육성 품종과 '퀵니나', '씨니틀레' 등 일본 도입 품종을 포함해 다양한 최신의 품종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시식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육성된 '슈팅스타' 품종은 아삭한 식감과 습사탕 향으로, '젤리팝' 품종은 캄캄얼리 같은 모양에 젤리와 같은 쫄깃한 식감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전북수출포도연구회 이대훈 회장은 "이번 품평회는 단순한 품종 전시에 그치지 않고, 산도농업인들의 포도 재배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신품종에 대한 특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한, 도농업기술원 서상원 원예과장은 "고품질 포도 생산을 통해내수와 수출 시장에서 전북 포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수출포도연구회는 매년 현장 평가회를 통해 농가 간 협력과 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품평회 또한 수출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포도산업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